“꽃향기 따라 걷다 보니”…지상낙원에 물들다

‘대한민국 명소 100X100’ 해부

〈6〉순천만국가정원

형형색색 꽃·호수 어우러진 풍경

봉화언덕 너머 노을빛 가을 정취

세계 각국 정원 따라 걷는 산책길

자연·문화·체험 품은 관광명소로



가을빛으로 물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의 봉화언덕이 잔잔한 호수와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자아내고 있다. /윤찬웅 기자

“꽃도 예쁘고 풍경도 아름다워요. 이렇게 넓은 정원을 걷다 보니 왜 순천이 유명한지 알 것 같아요.”

가을꽃과 호수가 어우러진 순천만국가정원이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의 ‘대한민국 명소발굴 100×100’에서 ‘한국의 정원’, ‘전 세계가 반한 K-꽃부심’ 등 총 13개 주제에 이름을 올린 순천만국가정원은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이다.

특히 ‘한국의 정원’에서 779표, ‘K-꽃부심’에서 299표를 얻어 각각 주제별 1위를 기록했다.

지난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계기로 조성된 정원은 2014년 4월 상설 정원으로 문을 열었으며, 이듬해인 2015년 9월 국가정원으로 지정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풍덕동과 오천동 일원 약 92만7천㎡ 부지에는 세계정원과 테마정원, 참여정원 등 다양한 공간이 자리하고 있다.

최근 찾은 순천만국가정원은 가을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선선한 바람이 불 때마다 형형색색의 꽃들이 일제히 고개를 흔들었다. 바람을 타고 은은한 꽃향기가 퍼졌고, 넓게 펼쳐진 꽃밭과 푸른 잔디밭 사이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연인들은 꽃을 배경으로 서로의 사진을 찍었고, 가족 단위 방문객들은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가을 정취를 만끽했다. 일부는 잠시 걸음을 멈춰 꽃향기를 맡거나 호수와 언덕이 어우러진 풍경을 휴대전화에 담기도 했다.

산책로를 따라 발걸음을 옮길수록 풍경도 조금씩 달라졌다. 길 양옆으로 계절의 색을 입은 꽃과 나무들이 이어졌고, 탁 트인 잔디밭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았다. 벤치에 앉아 쉬어가는 관광객들도 눈에 띄었다.

정원 중심부에 자리한 순천호수정원에 다다르자 탁 트인 호수가 눈앞에 나타났다. 호수 너머로는 완만한 곡선의 봉화언덕이 솟아 있었고, 물새들은 잔잔한 수면 위를 유유히 헤엄쳤다. 호숫가에 늘어선 갈대는 바람이 불 때마다 이리저리 일렁였다. 호수를 따라 이어진 산책로에서는 관광객들이 걸음을 멈추고 기념사진을 남겼다. 햇빛을 받은 물결이 반짝이는 가운데 호수와 봉화언덕을 한 장에 담으려는 사람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해가 서서히 기울자 봉화언덕 너머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호수에도 노을빛이 번졌고, 산책로를 걷던 관광객들은 하나둘 휴대전화를 꺼내 가을 풍경을 사진으로 남겼다.

세계 각국의 정원도 눈길을 끌었다. 나라별 특색을 살린 조경과 건축물이 곳곳에 자리했고, 산책로를 따라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서로 다른 분위기의 정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 가운데 프랑스정원은 베르사유 궁전을 본떠 바로크 시대의 화려하고 질서정연한 정원 양식을 재현했다. 반듯하게 다듬어진 나무와 가지런히 배치된 꽃들이 정돈된 풍경을 이뤘고, 연못과 정원 건축물 등이 어우러져 유럽 궁전의 정취를 느낄 수 있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왔다는 존슨(30대)씨는 “꽃과 들판을 좋아해 여행을 다니다가 우연히 순천만이라는 곳을 알게 돼 관광을 왔는데 너무 좋다”며 “안에 동물원도 있어 아이와 함께 오기에도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윤찬웅 기자

전남광주교육청 CI, 시민 투표로 결정한다

278개 공모 응모작 중 4개 후보 압축

10일까지 온·오프라인 투표 동시 진행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교육행정 통합의 새로운 비전과 정체성을 담을 공식 상징 이미지(CI)를 시민 선호도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

전남광주교육청은 2일 “CI 시민 선호도 투표를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 6월부터 ‘우리가 만드는 우리의 얼굴’을 기조로 시민 참여를 중심에 두고 전문성을 더하는 CI 개발을 추진해 왔다.

CI 공모전에는 전국 각지의 디자이너와 시민들이 높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총 278개의 다채롭고 독창적인 작품이 접수됐다. 이어 전문가 심사, 자문위원단 검토를 거쳐 대중성·상징성을 두루 갖춘 최종 후보작 4개로 압축했다. 〈사진〉

시민 투표는 새로운 교육청의 ‘얼굴’을 정하는 과정에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가족 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교육행정 통합의 의미를 더하고 소통과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취지다.

투표는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오프라인 현장 투표는 지난달 31일 광주에서 열린 AI 미래교육박람회를 시작으로, 여수, 무안, 광주 등 전남광주 곳곳에서 운영된다.

현장 방문이 어려운 경우 공식 누리집 및 전남광주교육통 등을 통해 누구나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링크 https://www.jngjedu.kr/news/articleView.html?idxno=201789)

김대중 교육감은 “전남광주교육청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상징적인 CI는 시작부터 끝까지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질 예정”이라며 “우리가 만드는 대한민국 교육 K-교육특별시는 교육가족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위에 완성될 것”이라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공식 CI 공모전 최종 결과는 오는 12월15일 발표될 예정이다. /김재정 기자

광산구, 하천구역 불법경작지 자진 정비 유도

미이행시 1천만원 이하 강제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가 지난 9월18일자로 시행된 개정 하천법에 따라 가을철 농작물 수확을 마친 하천구역 내 불법 경작지를 대상으로 신설 이행강제금 제도를 알리며 자진 정비 유도·방지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정해진 시정 기간 내에 원상회복이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는 명령을 완전히 이행할 때까지 연 2회 범위에서 반복 부과될 수 있다.

앞서 구는 지난 3월부터 하천 32곳(총연장 129㎞)과 계곡 등을 대상으로 불법경작, 물건 적치, 무단 형질변경 등 불법점용 행위에 대한 일제 조사를 진행했다. 구는 농작물 수확이 끝난 현시점을 정비 적기로 보고 21개 동 및 통장단과 협력해 농업용 시설물과 적치물의 자진 철거를 지속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정비를 마친 불법경작지에는 꽃단지를 조성하고 점용 금지 안내판을 설치해 사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옥근 기자

오늘의 날씨

해뜸 06:55 해짐 17:37 달뜸 00:33 달짐 14:18

●광주·전남 날씨

광주	구름조금	5/18	장성	구름조금	4/18
목포	구름조금	7/17	보성	구름조금	4/17
여수	구름조금	7/17	함평	구름조금	4/18
나주	구름조금	4/18	순천	구름조금	6/19
완도	구름조금	8/19	영광	구름조금	4/17
구례	구름조금	4/18	진도	구름조금	7/17
강진	구름조금	5/19	흑산도	구름조금	13/17
해남	구름조금	5/18	고흥	구름조금	7/18
광양	구름조금	6/18	담양	구름조금	4/18

●전국 날씨



●바다 날씨

위치		오전/파고(m)	오후/파고(m)
서해 남부	앞바다	0.5~1.0	0.5~0.5
	먼바다(북)	1.0~2.0	0.5~1.5
	먼바다(남)	1.0~2.0	0.5~1.5
남해 서부	앞바다	0.5~1.0	0.5~0.5
	먼바다(동)	1.0~2.0	0.5~1.5
	먼바다(서)	1.5~2.5	1.0~2.0

●물때

지역	만조	간조		만조	간조		만조	간조
목포	08:34	01:50	여수	04:13	09:59	녹동	04:56	11:02
	21:31	13:55		16:44	23:23		17:37	--:--

●생활정보지수

나들이 80 — 감기 조심해요

세 차 80 — 세차하기 좋은날

빨 래 70 — 실외건조 좋아요

운 동 50 — 운동 후 체온 유의

●주간 날씨

4일(수)	5일(목)	6일(금)
(8/18) 구름조금	(12/17) 흐려져 비	(10/15) 맑음
7일(토)	8일(일)	9일(월)
(2/10) 맑음	(2/11) 맑음	(3/13) 맑음

▶날씨안내 : 국번없이 131



